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00년을 향한 글로벌 선도의 닳을 올리며

운영위원장 이 영 승 (단국대 교수)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학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국제학술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고 학회의 위상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 류기형 회장님을 비롯하여 출선수범 30명의 운영위원과 베테랑 이민정 국장님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학회의 발전 방향과 학회 임직원분들과의 단합을 위한 1월 부산에서의 신년 하례식!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간접접촉으로 참석자 60명 전원이 PCR 검사를 받아야만 했고 우여곡절 끝에 전원 음성 판정이라는 소식으로 올해 집행부는 화려한 닳을 올리며 출항했습니다.

3건의 산업심포지엄을 강릉원주대 동해안생명과학연구소, 경북세계농업포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2건의 공동포럼을 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회와 개최했습니다. 6월에는 일본영양식량학회에 참석하여 신진과학자 교류를 이어갔으며 지부 활성화 일환으로 대전·충청지부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대회는 “New Frontiers for Green Biotechnology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Green BT)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식량 및 환경위기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바이오 기술로서 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건강기능식품, 마이크로바이옴 등 바이오 기반의 농생명 기술을 의미합니다. 3개의 기조강연, 학술대상 수상 강연과 17명의 해외연자로 이루어진 4개의 국제 세션, 일본영양식량학회와의 합동심포지엄 세션, 학술분과 세션 5개, 일반 세션 30개, 전임회장 특별 세션, 취업특강, 신진과학자 세션 및 학생참여 세션 등 총 5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술대회 기간 총 2,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고 역대 최대 1,052편의 포스터발표(28편의 포스터 구두발표), 4개 세션으로 이루어진 대학원생 구두발표, 2개 세션의 제품개발경진대회, 43개 기관 및 식품산업체의 전시회가 3일 동안 진행되어 명실공히 식품 및 영양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 만들어진 감성과학분과와 대체식품분과를 비롯하여 급식·외식분과, 임상영양분과, 발효식품분과, 개인맞춤영양분과에서 독립적인 발표 세션을 운영하였고 오만진, 류홍수, 권중호 전 임회장님 세 분께서 학회의 발자취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말씀으로 세션을 구성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을 발판 삼아 명실상부 식품과 영양 분야 글로벌 학회로 계속 뻗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고 댁내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